

1월4일(월)/사도행전4:5~12

**제목: 베드로의 용기**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公会 앞으로 끌려 나갔다. 베드로는 산헤드린公会 앞에서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그 걸인을 걷게 한 장본인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라고 연설하였을 뿐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연설하였다(10~12절). 산헤드린은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파와 율법학자들인 바리새파와 지역 상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다(5~6절). 베드로는 이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베드로는 닥쳐오는 위험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냉정한 용기를 가졌다. 사람은 모르면 용감하다. 닥쳐올 위험을 모르면 용기를 낼 수 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과시한 용기는 고난을 예측하면서도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겠다는 진정한 용기였다. 마치 전쟁에 나가면 틀림없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전쟁에 지원하는 군인처럼 말이다.. 그들은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는가? 이런 용기는 커녕 세상에서 비굴하게만 살지 않아도 괜찮을 텐데 말이다.

1월5일(화)/사도행전4:13~22

**제목: 교회는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13절)라는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담대히 그리고 정확하게 그 사건을 진술하였는지를 알게 된다. 이에 산헤드린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그 사실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위협 한 뒤 풀어주었다. 산헤드린은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할 말이 없었다.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지라”(14절) 병 나은 자가 눈 앞에 실지로 있는데 산헤드린이 무엇을 더 감출 수 있었겠는가? 산헤드린은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더 이상 부인 할 수 없었다(16절). 여기에 교회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 교회가 병든 사람을 치유할 수 없다면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다. 병자를 치유하지 못하고 사람을 개조할 수 없다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된다.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다시는 힐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길은, 병 나은 이와 같은 뚜렷하고 분명한 증거를 교회가 갖는 것이다. 이것은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이다.

1월6일(수)/사도행전4:23~31

**제목: 원수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산헤드린에게서 풀려 나온 베드로와 요한은 그동안 자신들이 당했던 일들을 다른 제자들에게 다 고하고 난 뒤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23~26절). 그리고 제자들은 서서히 원수들의 위협과 핍박이 다가올 것을 짐작하였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헤롯, 로마를 대표하는 빌라도,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를 거스리기 위하여 모일 것을 알았다(27절). 그런데 모여 봤자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것에 불과하다고 제자들은 확신하였다(28절).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확신이었다. 하나님의 주권, 지혜, 통치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기도를 더 북돋았다. 그래서 제자들은 저 집단들의 위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단지 “저희의 위협함 굽어봐달라고 만 기도하였다(29절). 제자들의 기도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31절). 그렇다. 이 세상에 모든 대적들이 총동원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모여도 그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 신앙 고백과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1월7일(목)/사도행전4:32~35

**제목: 믿으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한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생활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들은 서로 서로 물건을 나누어 쓰고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다(32절). 그들은 집이나 땅을 매매한 후 그 금액을 사도들에게 기탁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공정히 분배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34~35절). 그리고 이것은 새 생명의 공산주의이다. 가진 자의 재산을 뺏아서 나누는 정치적 공산주의 제도와는 다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이다.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 으로 하였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32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믿었던 결과가 무엇인가? 한 마음과 한 뜻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르침에 복종함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한 마음과 한 뜻을 실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미덕을 절대로 재현할 수 없다. 우리는 한 예수님을 믿는 지체임을 믿는가? 우리는 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임을 믿는가? 그러면 우리도 교회에서 서로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성도들과 항상 사이가 좋지 않다면 나의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인지 한번쯤 점검해봐야 한다.

1월8일(금)/사도행전4:36~37

**제목: 나의 별명이 나의 성적표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반적인 기록 다음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온다. 그것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사이다. 그는 구브로 출신이며 레위인이다(36절). 그는 땅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37절). 오늘날 사람들은 토지를 부동산이라 하여 얼마나 강한 소유욕을 불태우는가? 그러나 그는 이 부동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였다. 그는 그러한 일에 자기 부동산을 투자했다. 그의 투자에 대한 이익 배당금이 그에게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가는 뒤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의 인물됨에 대해서는 바나바라는 이름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의 아들’ 이라는 뜻이다(36절). 그는 늘 위로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에게 위로를 받았다. 위로의 아들이란 다른 사람들이 그의 태도를 보고 붙여준 이름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삶을 보고 어떤 이름을 붙여줄까? 그동안 나에게 붙여진 별명이 무엇이었지 잘 살펴보면 나의 삶의 성적표가 나올 수가 있다.



##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